



화려한 발기술로 관중들 '환호' 세팍타크로 최강자 가린다

전주시, 화산체육관서 오늘까지 '슬로시티 국제대회' 개최

전주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2017 전주슬로시티 국제세팍타크로대회'를 펼치고 있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회장 이태규)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세팍타크로협회(회장 이용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전주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개최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8개국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남녀 1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올해 대회에는 남자부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8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이 출전하며, 여자부는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베트남 등 7개국이 출전한다. 경기

방식은 조별 예선 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팍타크로 대회는 동남아 최고 인기 스포츠로, 족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화려한 발기술로 역동성과 박진감으로 관중들의 합성을 자아내는 스포츠다.

시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문화도시인 전주시 홍보 효과는 물론, 동남아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세월호 참사 3주기... 가수 조관우 '프레이 포 유' · 권진원 '사월...' · 김장훈 '광화문' 등 추모곡 잇따라

“유가족 · 희생자들이 위로 받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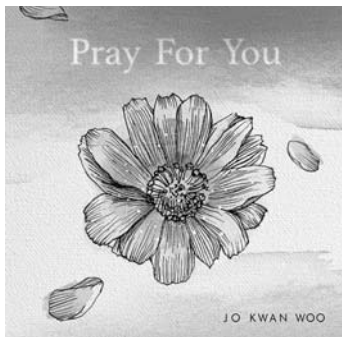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곡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가수 조관우는 지난 14일 정오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싱글 '프레이 포 유(Pray for You)'를 발매한다.

조관우의 미성이 돋보이는 소프트 팝 장르의 곡이다. 다신 아프지 않게 마음 편히 될 수 있게 '프레이 포 유' 등의 섬세한 노랫말이 위로를 준다. 프로듀싱 팀 '싱크 프로젝트(Sync Project)' 사단이 참여했다.

앨범 재킷 그림은 '영원한 행복'과 '슬픈 추억' 두 가지의 꽃말을 가진 '노란 복수초'를 모티브로 그렸다.

조관우는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마음이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희생자들이) 더는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관우는 지난 2014년 추모곡 '풍등'을 공개하고, 지난달 세월호 3주기 추모 공연 '기억'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조관우 '프레이 포 유'

작곡가 김형석은 지난 6일 세월호 추모곡 '그리움 만지다'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꽃이 된 아이들을 그리며 만든 곡이다.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한 잔잔한 독백의 가사, 나운권의 절제되고 섬세한 여린 감성의 목소리가 아련함을 전한다. 모든 저작권접권 수익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가수 권진원도 같은 날 세월호 추모곡 '사월, 꽃은 피는데'를 발표했다. '꽃처럼 예쁜 아이'들을 떠나 보낸 세월호 유가족

벵기에 출신 시오엔 시인 성기완과 함께 '스트레인지 데이스' 공개

국악 전문 음반사 '악당이반' 도 음반 내놔

에게 헌정한 노래다. 권진원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뮤지션 정재일이 편곡 작업에 힘을 보탰다.

가수 김장훈은 지난 12일 희망과 용기를 노래하는 신곡 '광화문'을 발표했다. 김장훈이 20년 만에 작사·작곡은 물론 어쿠스틱 기타 연주까지 도맡은 노래다.

김장훈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광화문과 지금의 광화문을 생각하며 쓴 곡"이라며 "세월호참사를 하며 광화문에 있던 그때부터 이 곡을 머릿속으로만 그리다가 최근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오후 5시 자신의 자택에서 여는 '집콘'에서 '광화문' 등을 들려준다.

'크루징'으로 유명한 '지한파' 벨기에 뮤지션 시오엔은 브뤼셀 테러와 세월호

위로곡 '스트레인지 데이스(Strange Days)'를 14일 공개했다.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 전 멤버이자 현재 월드뮤직 그룹 '아프로 아시안 사운드 액트(Afro Asian Sound Act)'를 이끌고 있는 뮤지션 겸 시인인 성기완과 함께 협업한 곡이다.

시오엔과 성기완이 곡 작업을 위해 만난 날은 IS가 벨기에 브뤼셀에 폭탄 테러를 발인 날이었다. 이번 노래 제목 그대로 '이상한 날'이었다.

평소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던 시오엔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도 누구 못지않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두 뮤지션은 이에 따라 성기완은 세월호를, 시오엔은 브뤼셀 테러에 대한 추모를 노랫말에 담았다. '눈부신 날 비둘기들이 배를 건져 올리네'라는 가사를 붙이며 평화와 기쁨을 기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브뤼셀 테러 현장과 벨기에 국민들의 추모 물결 사진들을 담았다.

국악 전문 음반사 '악당이반'은 '미안(未安)'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처 받은 이들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뉴시스



배우 김우빈,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에

배우 김우빈(28)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3일 오전 평창 주사무소에서 김우빈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주요 행사와 온라인 홍보, 광고 등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회범 위원장은 위촉패를 전달하며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평창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빈은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을 모두가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